

치킨·피자·편의점 등 식품·유통업체...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월드컵 열기 대~박

매출 평소보다 2~3배 꺾춤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드전을 승리로 이끈 12일 치킨, 피자 등 먹거리 업계와 편의점 업계가 월드컵 특수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전문업체인 BBQ 북구 용봉점은 이날 배달 주문 전화가 많을 것으로 보고 평소보다 두배나 많은 물량을 준비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주문이 몰려 준비한 물량이 모두 바닥났다. 맥시카나 서구 화점점도 주문전화가 이어지면서 평소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매출을 올렸다.

피자전문점인 임실치즈피자 북구

신안점도 평소 주말 매출보다 30~40% 늘었다.

월드컵 길거리 응원이나 단체응원이 많이 열리는 대학가 주변 편의점도 호황을 누렸다.

미니스톱 전남대 후문점은 평소보다 맥주, 마른안주, 과자류가 많이 팔리면서 매출이 50~60% 가량 늘었다. 웨비마트, 세븐일레븐 등 조선대학교 인근 편의점들도 평소보다 매출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대표팀이 선전을 하자 각종 경품을 내건 지역 백화점들도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대표팀 경기에서 첫 골을 기록한 선수를 맞추는 사람에게 제주도 여행권을 증정하는 ‘첫골의 주인공을 찾아라’ 이벤트 당첨자를 13일 오후에 뽑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1등 1명에게 대표팀의 한 골당 2000만원씩 상품권 금액을 올려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표팀이 2골을 기록하면서 1등 당첨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0만원으로 늘어남 상태다. 1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경품한도는 2억 원이다.

또 대표팀이 득점할 때마다 축구 꿈나무에게 축구공을 1000개 후원하기로 해 현재 2000개의 후원을 정해졌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 광장에서 열린 기아차의 'FIFA 팬 페스티벌' 모습. 기아차는 이 행사에서 쏘울, 벤가 등을 대형 중계화면 바로 앞에 전시하고 각종 현장 이벤트를 펼쳤다.

기아차, 18개국서 거리응원 축제

남아공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기아차는 월드컵 기간 전 세계 18개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거리응원 축제인 '기아 페스트(Kia Fest)'를 진행, 월드컵 붐을 조성하고 젊고 역동적인 기아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린다.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등의 시내 중심가 광장에 월드컵 경기 시청을 위한 대형 화면을 설치하고 기아 로고가 새겨진 각종 응원도구를 제공한다.

특히 파리 에펠탑 앞 광장에는 쏘울, 벤가, 씨드 등을 대형 중계화면 앞에 전시하며, 프랑크푸르트 중심 광장에는 '기아 씨티 아레나 프랑크푸르트'를 마련해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R과 쏘울 등을 전시하고 각종 응원도구를 배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글로벌 경기침체 점차 완화 낙폭 큰 소외株 눈여겨볼만

주간 증시 포커스

코스피 지수가 지속적인 변동성에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국내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지수반등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반등시도가 가능한 것은 기존 악재가 여전한데도 강도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남유럽 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정도가 침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 기대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관심이 경기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향후 발표될 국내의 경기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지수가 일회일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반등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버냉키의장의 최근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미국 경제에서 더를 더 우려는 없으며, 경제확장을 위한 캐도에 올라갔다고 진단했다.

남유럽 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중한 발언이 필요할 때 나온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유럽경기 둔화에도 신홍국가,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가 견조하다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바닥권을 형성할 조짐을 보이고 수출증가율도 48.5%로 발표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내증시가 내국인이 주도했던 반등이 일정수준 진행되며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현 수준에서 국내 투자자는 차이실현에 나설 수 있는 만큼 해당 이동평균선의 돌파를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번 주 장세에서는 지수의 움직임보다 종목별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종목대응에서는 긴 흐름에서 기존 주도 종목인 IT와 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주도 종목 중 최근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보유보다는 기술적인 매매를 병용할 것을 권한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의 우려의 완화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소외의 종목을 중심으로 한 순환매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백화점 브랜드 세일

18일부터 일제히 돌입 의류 등 10~30% 할인

지역 백화점들이 18일부터 유명 브랜드 제품을 10~30% 할인판매하는 '브랜드 세일' 행사를 시작한다.

'브랜드 세일'은 25일 시작하는 여름 정기세일(25~7월11일)을 앞두고 고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먼저 진행되는 할인 행사로, 잡화와 남성·여성 의류, 아동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페라가모(가격인하 30%), 버버리(20%), 아르마니(20%) 등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여성·남성·아동·잡화 등 130여개 브랜드가 '브랜드 세일'에 참여한다.

인터메조, 위도, 레노바, 갤럭시 캐주얼 등 남성의류는 20% 할인 판매하며 캡키즈, 블루독, 알로봇, 리바이스 키즈 등 아동복도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할인율을 높여 '브랜드 세일'에 참여하는 브랜드가 대폭 늘었다. 헨리코트, 헤지스 등

남성의류 브랜드를 비롯해 구두 브랜드인 나인웨스트와 제옥스가 30% 할인된 가격에 상품들을 내놓는다.

기획행사로는 24일까지 8층 사은 행사장에서 '시니어·엘레강스 여성 상품 특별 기획전'을 열어 폭스레이디 블라우스(9만원), 크로카다일 반바지(1만9000원) 등 저렴한 기획상품을 대거 선보인다.

또 여름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8월 12일까지 '썸머 비치웨어 페스티벌'도 열어 힐라 아동 수영복(1만5000원), 아라나 비치 수영복(4만9000원) 등을 판매한다.

현대백화점도 여성캐주얼, 남성의류, 잡화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해 10~30% 할인된 가격에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실시요

www.kiahearing.com

국제보청기

본점 (061) 227-994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52-9200
 송정점 (062) 227-9970
 익산점 (063) 851-2422

(주)제주무궁화관광

포이마 - 제주관광 최우수기업 (여행자보험·무궁화기프트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 3일 89,000원

제주 올레길 스페셜 투어 1일 2만원

특도 8박 1박 투어 89,000원
 2박 3일 2박 3일 89,000원
 제주 올레길 스페셜 투어 1일 2만원

문의: ☎ 064-744-1109 (주)제주무궁화관광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방수하면 100% 방수!!

방수제 방수제는 100% 방수!!

속성,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상 등 방수를 요하는 곳

방수제 방수제는 100% 방수!!

방수제 방수제는 100% 방수!!